

# 무주반딧불축제, 즐길 거리 넘쳐

낮에는 물벼락 페스티벌·밤에는 빛의 향연  
가요제·연극제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 인기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중반을 넘어서며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체험, 즐길 거리가 금·토·일 순님들을 솟자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도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생태탐험'을 비롯해 '남대천 생생플러스'와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디별 소풍' 등의 생태환경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남대천 사랑의 다리 위 '불벼락 페스티벌'은 13일과 14일 2회만을 남겨놓고 있다.

무주가 태권도 성지임을 확인시켜 줄 전주대 쏠아비팀의 '태권도 시범 공연(9. 12.~14.)'과 현터스 팀의 '태권도 야간 상설공연(9. 12.~13.)'도 축



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공연도 다채롭다. '무주 예술제', '반딧불이 가요제', 학생 연극제(무주중, 무풍초, 푸른꿈고) 등 무주군민들이 주인공인 무대가 지난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산의실 속 대세우기'와 '무주농악 보존회 공연'에 이어 이번 주말에 펼쳐질 '부남뱃소배문화축제(9. 12.)'와 '낙화놀이(9. 13.)' 등의 전통놀이는 무주 다움의 진수를 확인하기에 제격이다.

또한 매일 밤 '반디 EDM' 등이 군민들의 일상 속에 흥을 불어넣고 있으며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했던 남대천 반디 빛의 향연'도 13일 다시 관객들을 찾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11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실현

### 무주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무주군은 11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사회복지 협의회(회장 이규평)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나준균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단체 임직원, 관련 공무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작년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이상신 씨와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천소연 씨가 이웃사랑 실천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김상철 씨는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남경훈 주무관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무주지역자활센터 김래용 씨와 무주군 설천면행정복지센터 황운희 및 춤형복지팀장, 무주지역자활센터 곽계문 씨, 반디누리작업장 김태경 씨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LG사이언스파크 방문, 첨단 연구 현장 견학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11일,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국·소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이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기술 중심의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진안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방문단은 LG사이언스파크의 첨단 연구 시설과 기술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동향을 살펴봤다. 특히, LG사이언스파크가 추진 중인 기술 융합 사례와 혁신적인 연구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지역 현안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군은 이번 견학을 통해 지식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 행정 효율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 기술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추석 맞이 '장수몰 얼리버드 할인 이벤트'

장수군은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군 직영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장수몰'에서 군민과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2일부터 '추석맞이 이른(얼리버드) 할인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장수몰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 품목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25%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회원별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류 장수사

결제할 경우 최대 40%까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 알뜰한 추석 준비가 가능하다.

또한 추석 선물로 인기가 높은 장수군 대표 농산물 흉로 사과는 9월에 수확이 시작됐으며 가정용 3.5kg 기준으로 기본 25% 할인 적용 시 16,4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대추, 제과, 마늘, 미니오이 등 다양한 농산물이 새롭게 입점되었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장수 한우 상품도 다채롭게 구성해 준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군, 유관기관 협력·안전 점검 총력… 실시간 대응체계 강화

장수군은 다가오는 지역축제인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및 축제 관계장 등 15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제19회 장

수한우랑사과랑축제 안전관리계획'으로 인과 운집, 국지성 호우, 폭염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한 행사 운영 및 세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위원회는 △교통 및 주차 관리 대책 △화재와 응급환자 대응체계 △무대·전기·기설을 안전점검 △우천 및 강풍 등 기상악화 대비 계획 △관람객 혼잡 관리 △전년도 축제 및 행사 시 미흡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 등을 면밀히 심의했다.

또한,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방문객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 구축, 안전요원 및 지원봉사자 배치 확대, 위기 상황 대응 강화 등 한층 보강된 안전대책부분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물문화 포럼' 성황리 개최

### 수치유 관광도시 중심지로 도약 위한 전략 논의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물, 문화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물문화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물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고, 물을 매개로 한 치유·관광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워터운영관

리㈜(사장 우달식)와 한국물포럼(총재 곽결호)이 주관했으며 진안군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안호영 국회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지자체, 학계, 관련 기관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물 문화에 대한 학술 발표와 정책 제안과 더불어 진안군의 수치유 관광도시 비전 선포식이 함

께 열렸다. 개최식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 안호영 국회 의원, 동창록 진안군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진안군의 '수(水)·치유(治癒) 도시' 선포를 축하했다.

주제발표는 △물문화 정책과 확산 전략(강형식 본부장, 한국환경연구원) △친수관광 사례로 보는 한국의 물문화(강현수 팀장,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물문화 거점시설과 확산전략(송재민 교수, 서울대)이 발표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 통

#### 산림청 무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체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 행위 근절 위해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행위는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임산물을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임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오염 행위 등이며, 위반한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단속반을 구성하고 산림드론 운용을 통해 정밀한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에 대하여 임산물 채취 미허가인의 불법임산물 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과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환경 등 일제 점검

무주군은 오는 19일부터 25일 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기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 수준 향상, △환경오염 예방,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해당 농가에서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신고하면 된다.

축종과 수두, 사육 면적 등의 이행계획을 신고하면 되는데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는 6개월 간 처분이 유예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한 농가라도 이행계획을 불이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